

2017년도 오리산업 결산 및 향후 전망

글 : 한국오리협회 허관행 과장

1. 개황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 산란계농가와 충북 음성 육용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AI는 2017년 4월까지 총 383건 발생을 기록하며 오리산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이한 점은 H5N8형 AI와 함께 새로운 유형인 H5N6형 AI가 동시에 발생하였고 총 발생건수 383건 중 278건이 H5N6형 AI로 오리 뿐만아니라 산란계에도 발생이 집중되었다. 이로써 종오리 39농가 43만수, 육용오리 231농가 289만수를 비롯하여 총 946농가 3,787만수의 가금류가 매몰 처분되었다. 이후 2017년 6월 소규모 농가에서 36건의 AI 발생 이후 7월말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이 해제되었다.

역대 최대의 AI 피해를 겪으면서 정부는 9월 AI 재발방지를 위한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강도높은 방역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나 11월 17일 전북 고창 육용오리농가에서 H5N6형 AI가 또다시 발생하였다. 정부는 역학조사 결과 본 바이러스가 기존 국내에서 유행했던 것과는 달리 해외에서 새롭게 재조합된 바이러스이며, 철새에 의해 국내로 유입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2016년도 생체오리 3kg 기준 가격은 5천원으로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2016년말 발생한 AI에 따른 종오리수 감소로 오리가격은 상승하여 12월 현재 8천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AI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겨울철 오리농가 휴지기제와 함께 AI 방역지역 내 이동제한 등으로 오리 생산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7년도 자조금예산 18억 7천 5백만원을 활용하여 오리고기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전년대비 40%가량 감소된 생산량과 그간 반복 발생한 AI 누적 피해로 업계의 경영상황은 좋지 못하였고 농가들은 사육마리수 및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2017년도 결산

가. 오리 생산액

오리 생산액은 2011년 1조 3,966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반복적인 AI의 발생과 생산량 감소, 가격하락 등의 여파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오리 생산액은 2000년도 후반 이후 처음으로 1조원 미만인 8,140억원으로 떨어졌고 2016년 오리생산액은 9,121억원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하였다. 이는 농업품목 중 12위, 축산품목 중 6위로 전체 농업 생산액의 1.9%, 축산 생산액의 4.7%를 차지하였다.

나. 오리 사육마리수

통계청 가축동향조사에 따르면 2017년 9월 기준 오리 사육마리수는 6,987천수, 사육농가수는 508호로 전년동기 8,770천수 대비 20.3% 감소, 639호 대비 131호가 감소하였다. 지역별 농가수는 전체농가 508호 중 전남지역이 235호(46.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북 122호(24.0%), 충북 55호(10.8%) 순이다. 평균 사육마리수는 13,753수이며, 10,000~30,000수를 사육하는 농가수가 321호로 63.2%를 차지한다. 이중 종오리 사육농가는 83호, 사육마리수는 768천수로 전년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 오리 도축마리수

오리 도축마리수는 2012년 90,409천수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도축마리수는 71,447천수로 전년동기 71,056천수 대비 0.55% 증가하였다. 2017년의 경우 AI의 영향으로 11월까지 도축마리수는 41,316천수이며, 12월까지 연간 약 4천 6백만 수가 도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전년대비 35.6% 감소한 수준이다.

라. 오리 가격동향

2014년초 발생한 AI로 생체오리(3kg 기준) 가격은 2014년 6월 11,733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2016년은 오리고기 소비부진과 공급과잉의 여파로 5,118원으로 낮은 수준이 유지되었고 2016년말 발생한 AI의 여파로 2017년 생체오리 평균가격은 7,775원으로 전년 대비 51.9% 상승하였다.

새끼오리 가격 또한 2014년 6월 2,200원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2016년에는 771원, 2017년은 1,690원으로 전년대비 119.2% 상승하였다.

마. 오리 생산비

2013년 이후 사료가격의 하락으로 오리생산비는 감소추세를 보여 2016년 기준 5,226원으로 전년 5,376원 대비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내 오리농가 95%가량이 계열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사육하는 위탁사육 형태로 생산비 감소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은 사육마리수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 피해를 보고 있다.

바. 오리고기 수입현황

오리고기는 매년 3천톤 수준으로 꾸준히 수입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중국의 열처리오리육(훈제)이다. AI 상시 발생국가인 중국의 가금육의 경우 현재 열처리된 제품에 한해 수입이 가능하며, 2016년도 열처리오리육 수입량은 3,379톤이었으며, 2017년 수입량은 1월부터 10월까지 2,523톤으로 전년동기 2,534톤 대비 0.4% 감소하였다.

사. 오리고기 수출현황

한국과 오리고기 수출협약이 체결된 국가는 현재 캄보디아, 베트남, 일본, 홍콩 4개국에 불과하다. 이중 일본의 경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수출이 잠정 중단된 상황이며, 국내 AI 발생에 따라 2010년부터 오리고기 수출량은 없는 상황이다. 반면에 국내에서 비가식 부위인 오리발, 날개, 머리 등 부산물과 오리털은 동남아 등지로 활발하게 수출되고 있다.

아. 오리고기 소비량

한국오리협회 추정자료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2009년 1인당 2kg대에 진입, 2012년 3.4kg를 기록한 이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소비량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오리고기 소비량은 2.37kg로 전년 2.35kg와 비슷한 수준이다.

3. 오리산업 진단

한국개발연구원은 2018년 국내경제가 2.9%의 성장률을 보이고 민간소비에 있어서는 소득주도 성장 및 일자리 관련 정책효과로 2017년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오리산업의 경우 2010년도에 들어서부터 이러한 대내외적 요인보다는 유독 AI 발생 여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AI 발생시 육용오리 및 종

오리 매물처분, 방역지역 내 입식제한, 지자체별 반입금지 조치 및 방역권한 강화, 겨울철 오리농가 휴지기제 등 생산 불균형에 따른 가격등락의 반복, 오리고기 소비감소 등 그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의 사육마리수와 소득은 감소하고 계열업체들의 경영난은 누적되는 등 소규모 계열업체는 폐업하고 일부 오리농가는 폐업 또는 타 축종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오는 2018년 3월 24일까지로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무허가축사의 적법화율은 미진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의 붕괴까지 우려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당 농가들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밖에도 불량 축산물 파동에 의한 소비자 불신, 환경오염 문제, 각종 법 개정에 따른 규제강화 등 축산업 영위에 있어 어려운 환경이 한번에 겹쳐진 형국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각 농가와 계열업체간의 단합과 세밀한 경영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사육단계에서는 밀집사육지역 구조개편을 위한 AI특별법 제정을 통한 체질개신으로 AI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또한 사육환경 개선과 오리 면역력 증진,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 등 안전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유통부분에 있어서는 다양한 오리고기 제품 및 요리법 개발, 부분육과 소분할 포장 제품 확대, 중량단위 판매 등의 정착과 요식업소 위주 소비에서 가정소비의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4. 결론 및 전망

앞서 언급한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과 유통구조 개선 등 각종 제도적 기반이 확보된다면 영양학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지닌 오리고기의 소비확대와 발전 가능성은 앞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8년도 자조금 예산을 19억원으로 정하고 한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비홍보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비록 어려운 환경이지만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권익신장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앞으로 계열화된 산업구조의 장점을 살려 농가와 업체간 상호협력하여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던 2000년대 후반 오리산업의 영예를 되찾을 날이 머지않을 것으로 보인다.